

ISSUE BRIEFING

2020. 11. 19
Vol. 234

2020

ISSUE BRIEFING

연구진

최윤규_사회문화연구부 연구위원

코로나19에 따른 전라북도 남북교류 방안

CONTENTS

I.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북한 동향	03
II. 최근 북한 정세 동향	06
III. 남북교류 제언	09

요약

■ 북한, 코로나19 대응

- 북한은 동북아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르게 중국 국경을 폐쇄하는 등 코로나19에 대해 강력한 봉쇄 정책을 펼치고 있음
- 북한은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선포하고 방역에 온 힘을 쏟고 있음
- 북한은 공식적으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천명하고 있지만 일부에서 이미 코로나19가 전파되었고 사망자 발생을 추정함

■ 북한, 코로나19 영향

- 강력한 봉쇄 정책으로 북한 경제의 핵심 사업인 관광산업이 붕괴되고 있음
 - 마식령 스키장, 양덕 온천문화 휴양지 등 대부분의 관광지 운영이 중단
- 5월 부분적으로 북한과 중국의 무역이 재개되었지만 2020년 상반기 대중국 무역은 전년 동기 대비 수출 72.1%와 수입 66.7% 감소됨

■ 남한, 종전선언 추진

- 6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74명이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제출해 국회에 계류 중
- 문재인 대통령은 9월 22일 제75차 UN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 호소
- 문 대통령, 10월 7일 한미친선 '코리아 소사이어티' 연례만찬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 재강조

■ 남북교류 제언

- 전라북도,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우선 추진
 - 관계 법령 및 규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가능
 - 서울시와 경기도 등 6개 자치단체 대북지원사업자 기 지정
 -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추진
- 인도적 차원의 코로나19 방역물품 대북 지원
 - 코로나19 방역물품은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으로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면제에 해당됨
 - 유니세프와 국제적십자연맹, 중국, 스위스 등 북한에 코로나19 방역물품 기 지원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공동 지원 추진
 - 전국 광역자치단체 협의체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차원의 공동 지원이 바람직함
 - 현재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전라북도가 주도적으로 나서 이슈를 제기하고 협의회 행정관리국 '남북교류지원부'에서 실무 추진

I.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북한 동향

◎ 북한, 코로나19(COVID-19) 대응

• 북한, 코로나19 위험성 인식

- SARS-CoV-2 호흡기 증후군¹⁾으로 정의되는 코로나19는 제1급 감염병으로 2019년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보고된 이후 전 세계에 급속도로 전염되었음
- 1월 24일부터 7월 30일까지 북한 일간지 '로동신문'과 '민주조선'에서 보도된 코로나19 관련 기사는 1,200여건이며, 하루 평균 6건 이상으로 북한도 코로나19를 매우 위중한 전염병으로 인식(강경실, 2020. 9)

• 북한, 중국 국경 봉쇄

- 2020년 초 코로나19의 창궐로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은 1월 22일 국경을 전격적으로 폐쇄하였으며 이는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동북아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른 대응임
- 구체적으로 북한은 공식과 비공식 모든 무역을 일절 금지하였고, 국경 접근에 대해 사격을 가하겠다고 공고(박종철, 2020)
- 7월 당정치국 비상확대대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이 귀향한 개성시를 비상사태 지역으로 선포하고 8월 30일까지 전국적인 이동 봉쇄 명령 발동함
- 9월 24일 황해남도 웅진면에 접근한 해양수산물 공무원 사살 사건으로 북한의 견고한 국경폐쇄를 알 수 있음

• 북한, 코로나19 방역

- 1월 28일 북한 정부는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선포하고, 중앙과 각 지역에 비상방역지휘부를 설치한 후 '국경검사검역 규정'과 '격리지도서'를 배포하며 코로나19에 대응함(김혁, 2020)
- 방역 지침에 따라 2월 23일부터 모든 수입물품을 자연 상태에서 10일간 방치한 후 소독하여 유통(김혁, 2020)
- 북한은 대중교통의 소독을 강화했고, 평양 시민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하는 등 방역을 강화
- 4월 1일 개학일인 북한 소학교와 초급, 고급 중학교는 2월부터 총 4차례 방학기간을 연장하여 6월 3일 개학



출처: 뉴스1. 2020. 3. 9 북한 "코로나 방역은 중대한 국가적 사업.. 절대 북중해야"²⁾

1) SARS-CoV-2는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2의 약어로 제2형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 2임

2) <https://news.v.daum.net/v/202003090731167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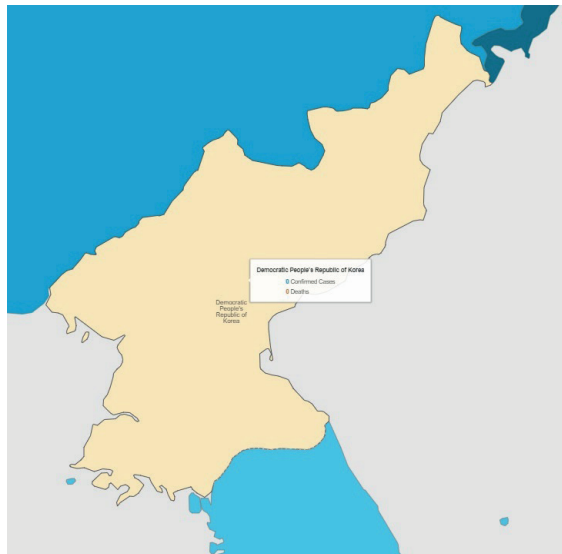
• 북한, 관광단지 운영 중단

- 김정은 체제 이후 북한은 원산갈마해안지구와 마식령 스키장, 양덕 온천문화 휴양지 등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을 통한 관광산업 육성에 노력
- 관광산업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 경제발전의 핵심 사업임
- 2018년 북한을 찾은 관광객은 20만 명을 넘었고, 이 가운데 중국인 관광객 유커(游客)가 90%를 차지함(한겨레신문, 2019. 7. 28)
- 2019년 6월 20~21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평양 방문 이후 중국 정부는 북한 방문 관광객 수를 500만 명으로 증가시키라고 여행사에 지시하고, 공무원들에게 의무적으로 북한을 관광하라고 지시(주간조선, 2019. 10. 7)
- 하지만 코로나19 유행 이후 북한은 1월 23일부터 중국 관광객의 북한 입국을 전면 금지하였고, 같은 달 30일 우리 정부에 금강산관광지구 철거 잠정보류를 통보
- 2월 6일부터 방역증명서를 소지한 사람만 북한 관광지역을 출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
- 결과적으로 마식령 스키장, 양덕 온천문화 휴양지 등 대부분의 관광지 운영이 중단됨으로써(김혁, 2020) 북한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인 관광산업이 붕괴

◎ 북한, 코로나19 발생

• 공식적 발생 전무

-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0월 10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한 명의 악성 바이러스 피해자도 없이 모두가 건강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고 밝혀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없음을 강조
- 10월 16일 현재 세계보건기구 WHO 공식집계에서 북한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는 0명이며, 같은 기간 구글 코로나 19는 데이터 없음



출처: WHO Coronavirus Disease (COVID-19) Dashboard³⁾

3) <https://covid19.who.int/> 검색일 2020. 10. 16

코로나 19에 따른 전라북도 남북교류 방안

- 우리 정부도 북한 발표를 인정하는 입장

- 7월 9일 통일부 조혜실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북한이 공식 매체를 통해 보도하는 내용이나 세계보건 기구에 신고한 바에 따라 ‘감염자 없음’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본다.”고 발언

- 산케이신문, 코로나19 사망 267명 보도

- 일본 산케이신문은 4월 26일 ‘북한 코로나19 사망자 267명’ 제목 기사에서 북한군 출신 탈북자단체 ‘북조선인민해방 전선’을 출처로 북한 간부대상 보고서에 따르면 4월 10일 현재 코로나19 사망자 267명, 격리자 48,528명으로 보도



산케이신문, 2020. 4. 26. 1면

- 조선일보, 코로나19 사망 500명 보도

- 조선일보는 7월 10일 ‘北 코로나 사망 500명, 격리 대상 39만명’ 제목 보도에서 북한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달 말 현재 북한의 코로나 사망자가 500명을 돌파했다.”고 보도

朝鮮日報

2020년 7월 10일 금요일 A08면 중반

“北 코로나 사망 500명, 격리 대상 39만명”

정부 당국이 동향 파악

모내기·개학 맞아 급속 확산
당국은 급성폐렴 사망자로 위장
부분 개방했던 신의주 세관 폐쇄

북한에서 지난 5~6월 코로나 사태가 악화하며 사망자가 500명을 넘어선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대외적으로는 ‘코로나 청정국’임을 주장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코로나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아 방역에 예불 먹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이 지난 2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지방적인 위기” “최대로 각성·경계” 등의 표현을 쓰며 “코로나 방역 강화”를 수차례 강조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은 이날 “지난달 말 현재 북한의 코로나 사망자가 500명을 돌파했다”며 “확진자가 40

여 명, 감염의심자가 100여 명, 격리 대상자가 39만명에 달해 사망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소식통은 “5~6월 모내기 동원으로 학생·주민·군인들이 한데 모여 일하고, 6월 초 전국 학교들까지 개학하면서 코로나가 급속 확산했다”고 전했다.

우리 군·정보 당국도 이 같은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첩보를 추가 수집·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지난달 4일 김영재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의 담화를 시작으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3주 동안 파상적인 대남 공세를 퍼부은 것도 대북 제재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경제난에 내부 불만·동요가 심각해진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또 다른 대북 소식통은 “식량난 가중으로 집에서 돼지를 기르는 가정이 급증하면서 돼지 열병도 함께 확산하고 있다”고 했다.

달초 북한은 전국 초·중·고교 개학일을 지난달 1일로 잡았다가 사전 방역 검

열에서 불합격 판정이 속출해 개학을 이틀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일부터 각급 학교에서 등교 수업이 시작됐으나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서 8월 방학을 7월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시 개방했던 북·중 국경을 다시 봉쇄하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월 말 코로나 유행 초기에 선제적으로 북·중 국경 봉쇄 조치를 취했다가 최근 들어 생필품 반입 등을 위해 봉쇄 조치를 일부 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한은 부분 개방했던 신의주 세관용 지난 6일 다시 닫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재유행하고 북한에서도 사망자가 속출하자 봉쇄 조치를 강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소식통은 “김정은이 지난 2일 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비상방역 강화를 지시한 영향”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

은 지난 7일 “(코로나)중앙비상방역” 지휘부에서는 국경과 영공, 영해를 완전히 봉쇄하고 국경과 해안 연선에 대한 봉쇄와 집중 감시를 더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평양에 체류하던 외국 외교관들이 최근 중국을 위해 전세기 이용을 요청했으나 코로나 유행을 우려한 북한 당국이 불허해 육로로 북한을 빠져나갔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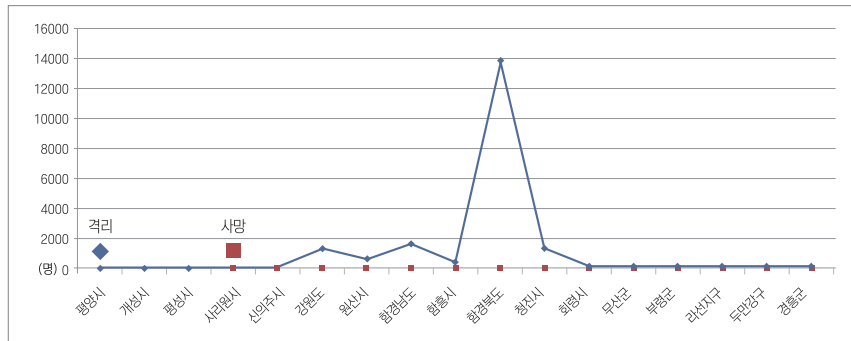
한편 북한 당국은 코로나 확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코로나 사망자를 일반 급성폐렴 사망자로 분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도 양이 증분진 않지만 중국·러시아에서 진단키트를 들여오기 때문에 코로나 진단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사망해도 ‘급성폐렴 사망’으로 발표하고, 시신은 모두 화장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명성 기자

출처: 조선일보, 2020. 7. 10. A40면. “북 코로나 사망 500명, 격리 대상 39만명”

• 북한 코로나19 사망자 발생

- 북한과학기술연구센터 강영실 연구위원(2020. 9)은 KDI 북한경제리뷰에서 북한은 코로나19 초기 국경폐쇄 등 신속하게 대응했지만 5월 현재 의심자의 자가격리자가 20,00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되었고,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주장
- 강 연구위원은 북한 중앙비상방역지휘부의 내부자료를 인용해 함경북도에 자가격리자가 가장 많고, 이어서 함경남도 와 강원도 순으로 제시
- 또한 강 연구위원은 특별히 방역을 강화한 평양시와 일반인 왕래를 통제된 개성시에서 사망자는 발생되지 않았다고 주장

5월 지역별 자가격리 및 사망자 수 비교



출처 : 강영실 (2020. 9). 코로나19에 대한 북한의 기술적 대응. p.43

II. 최근 북한 정세 동향

◎ 종전선언 추진

• 남북관계 돌파구, '종전선언'

- 정부와 여당은 검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로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음(차두현·홍상화, 2020)

• 국회 '종전선언 결의안' 제출

- 6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74명은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함
- 결의안은 9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해 안건조정위원회로 이송되었음

• 정부 '종전선언' 추진

- 9월 22일 제75차 UN총회 문재인 대통령 기조연설 중 종전선언 호소
 “특히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반도에 남아있는 비극적 상황을 끝낼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되어야 합니다. 한반도에서 평화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하고, 나아가 세계 질서의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믿습니다.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도 힘을 모아주길 바랍니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입니다.”-문재인 대통령-



출처: KTV, 유튜브 화면 캡처⁴⁾

- 문 대통령, 10월 7일 한미친선 '코리아 소사이어티' 연례만찬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 재강조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만이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진정으로 보답하는 길입니다. 어렵게 이룬 진전과 성과를 되돌릴 수는 없으며, 목적지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양국이 협력하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게 되길 희망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 ‘종전선언’ 추진 우려

-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구속력과 강제성을 배제한 상징적인 종전선언을 고려했지만 당시 미국 부시 행정부의 비핵화 결여와 한·미 동맹 악화 우려로 추진되지 못함(차두현·홍상화, 2020)
- 구속력 없는 상징적 종전선언은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고,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 비핵화에 방해(차두현·홍상화, 2020)된다는 우려도 존재함

◎ 태풍 ‘마이삭’ 수해 상황

• 검덕지구 수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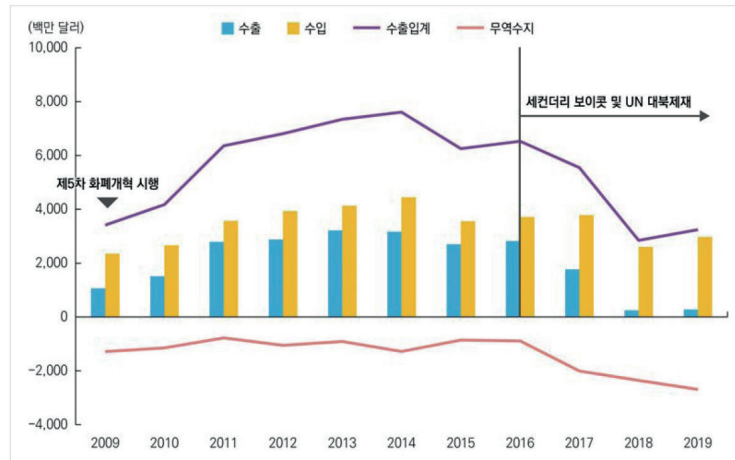
- 북한은 지난 9월 태풍 ‘마이삭’으로 함경남도 단천군 검덕지구에 막대한 피해를 입음
- 김정은 위원장은 9월 8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검덕지구 피해복구를 위한 인민군 동원을 명령한 후 10월 14일 검덕지구 피해복구 현장을 직접 시찰함
- 검덕지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마그네트사이트 매장 지역으로 철강산업에 필수적인 연과 아연이 풍부하게 매장된 지역임(오일석·최용환, 2020)
- 검덕지구가 험준한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도로와 철도 등 수해피해를 복구하는데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코로나19 방역차원에서 북한은 국제기구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 않아서(오일석·최용환, 2020) 수해복구에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4) <https://www.youtube.com/watch?v=HU9JhENvTcs>

◎ 북한 무역량 감소

- 북한 무역량은 2014년 수출 31억 6,400만 달러, 수입 44억 4,600만 달러에 달했지만 UN 안보리 결의와 미국 세컨더리 보이콧에 의해 북한 수출액이 2019년 2억 7,800만까지 급감함(김승현, 2020)

북한의 대외무역 추이



출처: 김승현 (2020). 코로나19 이후 북한의 대중국 무역추이. p.87

- UN과 미국의 대북재제로 북한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아진 현실에서 2018년까지 대중국 무역량은 급감하였지만 광물과 금속 중국 수출 비중은 여전히 높음(오일석·최용환, 2020)

〈표〉 북한의 대 중국 수출 현황 (2015-2019)

(단위:미국 달러)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육류 제품(Animal Products)	109,394,000	190,717,196	163,185,000	203,000	279,409
채소(Vegetable Products)	72,789,000	70,362,304	106,106,000	11,806,000	2,015,360
광물(Mineral Products)	1,302,477,000	1,447,255,086	643,829,000	47,310,000	32,734,716
화학 제품 (Chemicals & Allied Industries)	9,444,000	9,370,652	6,410,000	6,072,000	8,330,262
플라스틱/고무(Plastics/Rubbers)	1,139,000	396,273	963,000	780,000	1,157,736
목재 및 목재 제품 (Wood & Wood Products)	21,978,000	19,457,053	14,658,000	5,150,000	2,576,193
섬유(Textiles)	811,551,000	735,866,460	575,062,000	33,000	55,543
귀금속 및 광석 (Precious Metals and Stones)	2,588,000	345,182	685,000	869,000	633,842
금속(Metals)	76,036,000	101,080,603	70,864,000	34,482,000	34,668,330
기계 및 전자기기 (Machinery & Electrical Equipment)	57,864,000	34,935,043	28,161,000	1,021,000	559
운송(Transportation)	2,013,000	2,218,345	919,000	1,000	53
기타(Other or Unspecified)	16,670,000	22,395,575	39,821,000	86,897,000	132,742,581

출처: 오일석·최용환 (2020). 북한 검덕지구 수해 지원을 남북협력의 계기로. p.3

- 1월 중국 국경을 봉쇄한 북한은 5월부터 부분적으로 무역을 재개했지만 2020년 상반기 대중국 수출 2,900만 달러, 수입 3억 8,4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2.1%와 66.7% 감소됨 (김승현, 2020)

◎ 시사점

- 북한은 코로나19에 대해 매우 위중하게 인식하고 최고단계에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음
- 북한이 대외적으로 코로나19 발생이 없음을 주장하며 청정국가를 선포했지만 코로나19 환자 발생 징후로 매우 위험할 수 있음
- 따라서 인도적 차원의 방역용품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됨
- 더불어 대중국 광물 수출의 과중한 의존도를 고려할 때 검덕지구의 수해복구는 경제회복을 위해 매우 시급한 현안임

III. 남북교류 제언

◎ 전라북도,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 지자체, 남북교류 법적 근거
 - 통일부는 8월 27일 입법 예고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법인과 단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여 주체를 확대함
 - 그 동안 관련 법 주체에서 지자체가 누락되어 독자적인 남북교류가 불가능했지만 법 개정으로 지자체의 남북교류 법적 근거가 마련됨
 -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통일부는 「인도적 대북지원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지자체가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함
- 전라북도,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우선 추진
 - 2019년 11월 서울시가 대북지원사업자로 첫 지정된 이후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등 광역자치단체 4곳과 고양시와 파주시 등 기초자치단체 2곳이 지정됨
 - 타 지자체에서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라북도도 하루 빨리 대북지원사업자를 지정받아야 함
 - 「인도적 대북지원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에서 지자체의 경우 조례를 근거로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통일부에 신청할 수 있음
 - 전라북도의 경우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신청이 가능함

◎ 코로나19 방역용품 우선 지원

• 국제기구, 코로나19 방역물품 대북 지원

- 북한이 2월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을 유니세프에 요청하였고, 유니세프는 북한 사무소를 통해 방역물품을 전달했음 (연합뉴스, 2020. 2. 19)
- ‘코로나19 팬데믹 6개월 업데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적십자연맹(IFPC)은 51만 달러 상당의 코로나19 방역용품을 북한에 전달했으며, 특히 유엔 안보리로부터 대북제재를 면제 받은 유전자증폭장치(PCR)와 진단시약 키트, 적외선 체온계도 지원됨
- 그 밖에 중국의 진단시약과 개인보호장비, 아랍에미리트의 개인보호장비, 스위스의 소독용품 등 각국의 코로나19 방역물품이 북한에 전달됨

• 국제사회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북한을 지원하는 현실에서 전라북도가 동참하여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해야 함

- 경기도와 남북경제협력연구소는 8월 코로나19 방역용품을 북한에 전달한 바 있음(KBS, 2020. 8. 14)

• 전라북도 단독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전국 광역자치단체 대표 기구인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의 공동 지원이 바람직함

- 현재 송하진 전라북도지사가 협의회장을 맡고 있고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주도적으로 나서 이슈를 주도해야 함
- 시도지사협의회 행정관리국에 ‘남북교류지원부’가 설치되어 있어 실무기구도 이미 구축되어 있음

◎ 검덕지구 수해복구 지원으로 확장

• 태풍 ‘마이삭’ 피해를 입은 검덕지구는 2006년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의해 남북 자원개발 협력을 추진한 남북협력의 상징적 지역임

• 과거 2016년 태풍 ‘라이언록’으로 무산 철광지역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북한은 아시아 9국에게 협조를 요청했고 러시아와 중국 등이 수해복구를 지원함

• 남한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를 통해 2,800만원 상당의 라면과 밀가루를 지원한바 있음

• 북한에서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검덕지구 수해복구 지원을 국제사회에 요청하고 있지 않지만 수해복구 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오일석·최용환, 2020)

• 결론적으로 북한의 상황을 고려하여 코로나19 방역물품을 우선 지원하고, 더 나아가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수해복구로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함

<참고문헌>

- 강경실 (2020. 9). 코로나19에 대한 북한의 기술적 대응. KDI. 북한경제리뷰 22(9), 35-53.
- 김승현 (2020. 9). 코로나19 이후 북한의 대중국 무역추이.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산업동향&이슈, 9.
- 김혁 (2020). 북한은 코로나-19를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경남연구원. 남북교류브리프 1.
- 뉴스1 (2020. 9. 16). IFRC “대북 코로나19 지원에 약 6억원 지출”.
- 박종철 (2020). 북한 개별관광의 새로운 접근법. 경남연구원. 남북교류브리프 2.
- 오일석·최용환 (2020). 북한 검덕지구 수해 지원을 남북협력의 계기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슈브리프, 214.
- 연합뉴스 (2020. 2. 19). VOA, '유니세프, 북한에 코로나19 물품 전달' 정정... “지원요청”.
- 주간조선 (2019. 10. 7). 북한 생명줄로 떠오른 '500만' 중국인 관광객. 2577호.
- 한겨레신문 (2019. 7. 28). 북 찾은 외국인 관광객 20만 넘었다...“90%는 중국인”.
- 조선일보 (2020. 7. 10) A40면. “북 코로나 사망 500명, 격리 대상 39만명”.
- 차두현·홍상화 (2020). ‘종전선언’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탈피해야 비핵화도 평화도 가능하다.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핑 2020(29).
- 産經新聞 (2020. 4. 26) 1面. 北, コロナ死者267人.
- KBS (2020. 8. 14). 지자체 최초로 방역물품 대북지원...남북 교류 물꼬 틀까? 뉴스9.
- WHO (2020. 10. 16). WHO Coronavirus Disease (COVID-19) Dashboard.



ISSUE BRIEFING
2020. 11. 19 Vol. 234



550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Tel 063-280-7100 Fax 063-286-9206

발행인_김선기
발행처_전북연구원

※ 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